



2025 교회 표어

세상 속 참된 그리스도인! (단 1:8)

주일 예배 순서	오전 11시 인도 박현수 목사
*기원	목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영광 중에 계신 주(찬20) • 인애하신 구세주여(찬279)
기도	김승모 집사
성경봉독	다니엘 3장 24-30절
특별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대-
설교	“왕이 드디어...” -박현수 목사-
성찬	수찬교인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봉헌기도/축도	박현수 목사

*표는 일어서서
 💡 헌금은 입구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Zelle 온라인헌금: highland.giving@gmail.com)

Youtube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 금요 찬양 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토요 새벽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Youtube QT 방송: 화요일, 목요일

P C A 하이랜드교회
 한인중부노회

Highland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박현수 (Rev. Jason Hyunsoo Park, Pastor)

820 S. Milwaukee Ave. Vernon Hills, IL 60061 ☎(847) 634-6033
www.highlandchurch.com (web) highlandchurch1977@gmail.com (교회)
parkhyunsoo@hotmail.com (담임목사) hellofromhighland.com (EM Web)

◀ 핫도그에 케찹을 뿌리면 체포됩니다! ▶

‘시카고에서 핫도그에 케찹을 뿌려 먹으면 경찰에 체포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각 지역마다 핫도그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특성이 있는데, 시카고에서는 케찹을 뿌려 먹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케찹을 뿌려 먹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시중에서 “시카고 핫도그”라고 이름하여 파는 핫도그에는 케찹이 없습니다. ‘시카고 핫도그’는 토마토, 피클, 매운 고추, 렐리시, 양파, 머스터드를 올려 먹지만, 케찹은 뿌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공황 시절’ 품질이 낮은 소세지의 맛을 가리기 위해서 케찹을 뿌려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카고 정육업자들이 시카고에서 생산되는 좋은 품질의 소세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케찹을 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케찹을 뿌리면 케찹의 시큼한 맛이 강해서 소세지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저도 시카고 스타일의 핫도그를 좋아하는데 아마도 소세지 본연의 맛을 즐기는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 ‘믿는 자들의 삶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품질이 낮은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가리기 위한 포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그 중 하나입니다. 신앙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어떤 직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직분이 자신의 믿음의 정도라고 착각합니다. 해외 선교 등 특별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낮은 품질을 가리려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케찹이 필요하십니까? -박목-

◀ 광고 ▶

- 정기 당회: 오늘 친교 후 당회장실
- 1/4분기 정기 제직회: 다음 주일(3/9) 친교 후 분당
- 일광절약제 시작(Daylight Savings Time): 다음 주일(3/9) 새벽 1시를 새벽 2시로 변경
- 에녹회 총회: 다음 주일(3/9) 예배 후 분당
- 친교: 이번주- 이영길 장로 가정/ 다음주- 김종석 집사 가정
- 협력기도: 김영자(김택문), 김정평, 권순조, 이맹표, 이오덕
- 다음주 기도: 황인성 집사/ 금요일예배 기도: 김영순 집사
- 3월 뒷정리: 1구역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담임 목사 박현수
 E.M 목사 정영준(Jonny)
 교육 목사 신준식(James, 유초등부)
 시무장로 최의순 김태중
 성가지휘 강수경
 반주 Adam Kastler
 찬양팀 최의순 최의설 강수경

◀ 후원 선교사 ▶

케냐 - 강충만
 캄보디아 - 김석훈
 NOVO(NK) - 서예레미야
 니카라과 - 정영효
 REI - James Kang
 Global Hope - 조용중
 *우리는 교인의 1%를 선교 보내는 1% 챌린지 교회입니다!